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7. 15.(수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농업디지털센터장	김태우	☎ 760-7250
		농업관측팀장	김동현	☎ 760-7271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종자 신청량으로 미리 본 '26~'27년산 월동채소

- 농업기술원, 파종 전 재배면적 예측…종자 신청량과 농가 설문조사 분석 -
- 월동무·양배추 감소, 당근·브로콜리 전년 수준, 양파 소폭 증가 예상 -

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'26~'27년산 주요 월동채소 재배면적을 조기에 예측하기 위해 실시한 ‘종자 신청량 조사 결과’를 발표했다.

* 종자 신청량 조사: 작물 파종 이전에 재배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, 예상 재배면적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.

○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자회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월동채소의 종자 신청량을 파악하고, 재배농가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.

□ 조사 결과 월동무와 양배추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감소하는 반면, 당근과 브로콜리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양파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.

○ 품목별 예상 재배면적은 △월동무 3.7% 감소 △양배추 8.0% 감소 △당근·브로콜리 전년 수준 유지 △양파 3.5% 증가로 분석됐다.

○ 월동무와 양배추는 소비 부진과 최근 가격 약세의 영향으로 종자 신청량이 감소하면서 재배면적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.

- 당근은 재파종에 대비한 비축용 종자 신청량이 다소 늘었으나, 농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재배면적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.
 - 브로콜리는 가격 회복 기대와 일부 작목 전환의 영향으로 종자 신청량은 증가했지만,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재배면적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.
 - 양파의 경우, 사전 종자 신청량과 농가 설문조사 결과에서 모두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. 다만 저장 물량이 연중 출하되는 품목 특성상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재배면적은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.
-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“종자 신청량 조사는 월동채소 재배면적을 가장 먼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선행지표지만, 기상 여건과 타 작물의 재배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다” 며, “앞으로도 종자 실제 유통량과 현장의 작황 분석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예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월동채소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지원하겠다” 고 말했다.